

GREENPEACE

그린피스의 미션

독립적인 캠페인 단체 그린피스는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널리 알리고, 깨끗하고 푸른 미래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대항합니다. 그린피스는 지구의 모든 다양한 생명이 번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네 가지를 추구합니다.

- 생물 다양성 보호
- 해양, 토양, 대기, 수질의 오염과 남용 방지
- 모든 핵 위협의 종결
- 세계 평화, 군비 축소, 비폭력

그린피스의 핵심가치

- 긍정적인 행동** 그린피스는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대응방식을 취합니다.
- 신뢰** 그린피스는 환경 문제를 독립적으로 조사, 연구 및 행동함으로써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 글로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경 없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범세계적인 지식과 자원을 활용합니다.
- 독립성** 그린피스는 정부, 기업 혹은 정당으로부터 그 어떤 후원도 받지 않으며 개인 후원자와 독립재단의 후원만을 받아 정치적·상업적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그린피스가 어떤 기업이나 정부로부터도 언제나 독립적으로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항해 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린피스를 후원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REENPEACE

재단법인 그린피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우 04322)

☎ 02-3144-1997 ✉ supporter.kr@greenpeace.org 🏠 www.greenpeace.org/korea
📘 www.facebook.com/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이 제작물의 표지는 FSC인증 용지, 내지는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공기를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SPRING 2016

IMPACT REPORT





cover story

케냐 사바나 초원에 서식하는 치타

© Markus Mauthe / Greenpeace

목차

- 02 인사말
- 04 후원금 사용 내역 & IDEAL
- 05 그린피스 뉴스
- 08 캠페인 설문조사
- 12 기후에너지 캠페인 1
- 14 기후에너지 캠페인 2
- 16 독성물질 제거 캠페인
- 18 해양 보호 캠페인
- 20 산림 보호 캠페인
- 22 그린피스 사람들
- 23 후원자 소식

임팩트 리포트 2016 봄호(통권 6호)

발행일 2016년 3월 15일
 발행처 재단법인 그린피스
 전 화 02)3144-199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디자인 및 인쇄 (주)인디엔피 www.indnp.com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그린피스의 2016년



© Dave Hansford / Greenpeace

2016년에도 변함없이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어느새 따뜻한 기운이 느껴
 지는 봄이 왔습니다.

환경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발생한 환경파괴는 또
 다른 문제와 피해를 불러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하나뿐인 지구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나만의 이익이 아닌 우리 모두의, 더 나아가
 미래의 희망을 위한 일입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계신 후원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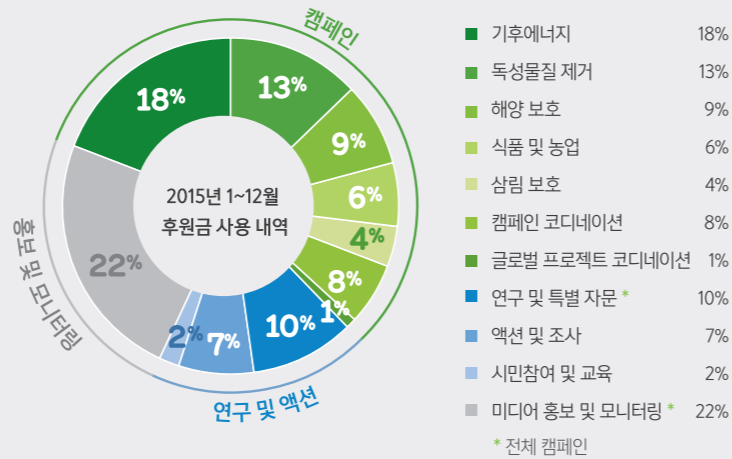
이번 임팩트 리포트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린피스의 석탄 캠페인,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디톡스 아웃도어 캠페인
 등 최신 소식을 비롯해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해 후원자님들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계신지 알아보았던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가 아닌, ‘내 목소리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그린피스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에 기쁜
 소식으로 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후원사업국
 국장 채정아 드림

2015년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후원금 사용 내역

*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활동 방식 IDEAL이란? 그레이트 베어 우림을 지키다 캠페인 사례

IDEAL은 그린피스의 캠페인 활동 방식을 뜻합니다. 그린피스는 환경파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조사하고, 기록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폭로하며, 비폭력적인 직접행동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나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대화합니다.

Investigate 조사
그린피스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그레이트 베어(Great Bear) 우림이 상업적 벌목으로 파괴되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1997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Document 기록
상업적 벌목으로부터 보호받는 구역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체 우림의 5%에 불과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파괴되고 있는 우림의 현장을 기록해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Expose 폭로
그린피스의 폭로를 통해 실상을 알게 된 전 세계 시민들은 그레이트 베어 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수입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항의했습니다. 그 결과 1999년, 문구 기업 홈 디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림에서 생산된 목재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ct 행동
그린피스 캐나다는 물론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각국에서 평화적 직접행동에 나섰습니다. 활동가들은 목재를 나르는 배에 '숲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거대한 곰 인형과 함께 캐나다 대사관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Lobby 로비
그린피스는 20년 간의 캠페인 과정에서 끊임없이 캐나다 정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바꾸도록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그레이트 베어 우림의 85%가 영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는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희귀종인 스피릿 베어와 늑대, 연어들의 서식지가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그린피스 한국 캠페인

너와 나를 위한 100% 재생가능에너지

지난 2015년 11월 29일, 서울 청계천 거리에 모인 1,000여 명의 시민들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기후 변화 해결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진에서는 EU대사들을 포함해 각계의 주요 인사들, 방송인 줄리안과 크리스티나도 대규모 평화 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 직접 손으로 만든 피켓, 색색의 바람개비를 든 시민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다음날인 11월 30일부터 파리에 서 개막하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석하는 190여 개국

지도자들에게 시민들의 뜻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75개국 80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아바즈, 기후행동2015, GEYK, 350.org 등 국내외 환경단체들과 함께 행진을 주최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행진이 진행되기 전에는 그린피스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활동가들은 청계 광장을 상징하는 소라 모양의 조형물 '스프링' 앞에서 태양광 모양의 패널과 풍력발전기 모양의 무지개색 바람개비를 들었으며, 패널에는 "미래부, 정책으로 답해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겨있었습니다. 그린피스가 11월 중순 미래창조과학부에 공식적으로 보낸 정책 제안을 현재 마련 중인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비폭력'에 대한 시선과 행동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지난 2월, NVDA (Non Violent Direct Actions)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NVDA 트레이닝은 그린피스가 유지하는 비폭력 방식,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린피스 스태프들은 물론, 그린피스의 평화적 직접행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자원봉사 활동가 및 일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트레이닝에서는 그린피스의 핵심 가치와 캠페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폭력과 비폭력'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사람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평화적 직접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이제까지 국내외 그린피스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평화적 직접행동의 사례를 영상을 통해 만나보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캠페인**

**홍콩
'아무 것도 안 사는 날',
과잉 소비를 멈춰주세요!**

지난 12월 21일,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려는 수 많은 시민들로 붐비는 홍콩의 대형 쇼핑 센터 타임 스퀘어에 "Buy Smart, Buy Less(현명하게 사고, 조금 덜 사자)"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그린피스 홍콩 사무소에서 진행한 이번 평화적 직접행동은 '아무 것도 안 사는 날 (Buy nothing day)'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는 것은 과잉 소비 일뿐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미스 홍콩, TV 앵커 등 셀러브리티들과 그린피스 서포터들이 함께 오래된 바지를 가방으로 변신시키는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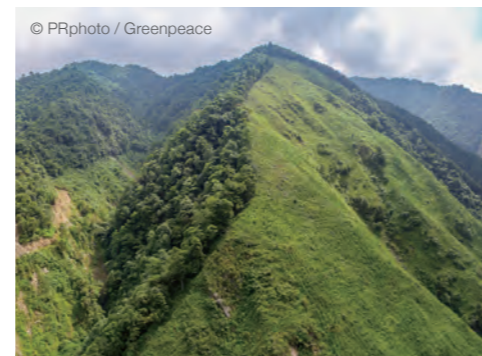
**대만
불법 어업을 향한
옐로우 카드**

그린피스 대만 사무소에서는 지난 12월, 대만 정부에게 불법 어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액션을 펼쳤습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 캠프 앞으로 배달된 2.6m 크기의 동상은 옐로우 카드를 들고 있는 거대한 손 모양으로, 대만 어업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가시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린피스의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태평양에서 불법 어업 감시활동을 하던 중 지난 8월, 대만의 연승선에서 40마리가 넘는 상어에서 불법 절취한 상어지느러미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은 대만을 '불법 어업 예비지정국'으로 선고했으며, 대만 정부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그린피스, 중국 대왕판다
서식지를 지켜내다**

지난 10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중국의 가장 큰 판다공 서식지인 원시림이 불법 벌목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중국의 상징인 대왕판다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시정 요구에 쓰촨 산림청은 불법 벌목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산림 벌채 문제는 쓰촨성뿐 아니라 중국 곳곳에 만연해있으며, 그린피스는 야생동물과 야생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린피스
글로벌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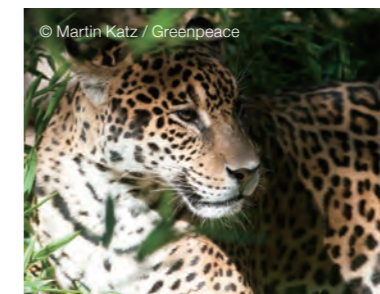
**일본
멸종위기에 처한
일본 듀공 구하기**

지구상에 몇 마리 남지 않은 일본 듀공의 서식지가 오키나와 주재 미군기지의 확장으로 매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듀공은 거대한 몸집을 포유류로, 오키나와 헤노코만은 이 듀공을 비롯해 무수한 산호초들과 흰둥가리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듀공의 서식지를 지켜달라는 평화적인 직접행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그린피스는 164개국 시민 3만여 명의 서명을 모아 일본 국방부에 전달했으며, 오키나와 지방 자치단체는 해양 환경 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생물권보전지역,
칼릴레과 국립공원을 지키다**

아르헨티나 후후이 주의 칼릴레과(Calilegua) 국립공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집결지로서, 아르헨티나에 사는 새들 절반의 서식지이자 재규어와 같은 멸종 위기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국립공원 경비요원, 지역 주민 및 시민 단체와 함께 그린피스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석유 탐사와 시추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전 세계 27만 명의 사람들이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참여해 보호구역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불합리한 일인지를 강조했다. 지속적인 캠페인의 결과, 결국 후후이 주 입법부는 작년 12월 17일 칼릴레과 국립공원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활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시리아
시리아 난민을 위한
구조작업을 펼치다**

그린피스는 지난 11월부터 국경없는의사회(MSF)와 함께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에게해를 건너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시리아 난민들의 구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세 척의 복합정(단단한 선체에 부력 튜브가 조합된 빠른 속도의 보트)이 마련되었으며, 그린피스와 MSF는 그리스 해안경비대와 협력하여 난민 구조에 나섰습니다. 2015년만 해도 유럽으로 탈출하던 난민 3,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 역시 많은 수의 난민들이 배를 이용해 탈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린피스와 MSF는 위험한 보트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는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MSF는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이나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도 함께 힘을 모아 인명구조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린피스를 만듭니다**

그린피스에게 지난 2015년은 크고 작은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기운을 몰아
기후변화, 해양 파괴, 산림 벌채, 대기오염 등 지구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린피스를 지지해주시고 지구를 사랑하는 후원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넓게 듣고자 합니다. 후원자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얻은 정보와 따뜻한 격려를 통해, 보다 강화된 전략과 캠페인을 만들 것입니다.

지난해 말, 그린피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동아시아 지부의 후원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빅 리스닝(Big Listening)' 설문조사에는 15,000여 명이 참여해주셨으며, 설문 결과를 지면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귀중한 의견을 들려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결과를 장기 캠페인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 세계 4천 명의 그린피스 직원들과 300만 명의 후원자들, 1,700만 명의 서포터와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분석하여 선정된 총 10개의 테마들은 향후 10년간 그린피스 캠페인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동아시아 지부의 2017년~2019년 3개년 계획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린피스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린피스 드림

어떤 캠페인을 할 것인가?

지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7개 항목 중 최대 5개 선택

- 1위 대기오염
- 2위 파괴적인 이상 기후의 증가
- 3위 녹아내리는 북극 빙하
- 4위 사람과 환경보다 영리를 앞세우는 정치인들과 기업들
- 5위 해양과 수로의 오염과 쓰레기
- 6위 산림 파괴
- 7위 동식물의 멸종
- 8위 증가하는 갈등과 전쟁
- 9위 안전하지 않은 식품 생산 과정
- 10위 일상생활 속의 독성 화학물질

그린피스가 진행하는 캠페인이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와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상위 3가지 항목은 모두 기후변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 사무소를 포함한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캠페인에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 중에서, '석탄 및 화석 연료의 사용'이 큰 문제라고 선택하신 분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석탄과 화석 연료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캠페인을 고르시겠습니까?

- 1위 해양 캠페인에 참여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바다의 오염을 줄인다.
- 2위 아마존 열대 우림이나 인도네시아, 콩고 등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고대의 숲들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
- 3위 지구의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과잉 소비를 자제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에 참여한다.
- 4위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막아 한국을 대형 원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킨다.
- 5위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막아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문제를 해결한다.
- 6위 IT기업들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경제적인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을 막는다.

이 설문 결과를 통해 그린피스 동아시아의 해양오염 및 과잉 소비 해결, 전 세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원시림 보존 등의 캠페인에 많이 공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산림 파괴 중단은 물론 해양 쓰레기 감소에 초점을 맞춘 더 많은 캠페인 활동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캠페인을 이끌 것인가?

어떤 분야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75% 과학과 기술

친환경 과학 기술 발달로 인한 변화

59% 시민들의 인식

텃밭 가꾸기, 시민 언론 활동 참여 등

48%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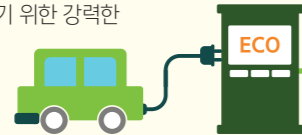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사회공헌활동

47% 새로운 경제 모델

공유 경제, 초소형 주택,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20% 정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도 마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친환경적인 생산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린피스는 우리 사회가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친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3~5년간 그린피스가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것'을 묻는 또 다른 질문에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기업의 행동 변화'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선택해주신 항목은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더 많이 알리고 홍보'와 '개인과 대중이 직접 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었습니다. 이 항목들은 그린피스가 이제까지 꾸준히 진행해 왔던 일들입니다. 후원자님들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피스의 활동 방식을 신뢰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어떤 분야일까요?

1위 환경보호 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

2위 환경파괴에 대한 리서치와 조사, 폭로

3위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것

4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것

5위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

6위 환경파괴를 멈추기 위한 평화적 직접행동

7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정치가들과 대화하고 격려하는 것

8위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자선단체나 종교그룹 등 다른 기관과 협조하는 것



그린피스는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쉘의 북극 석유 시추 포기, 파리 기후회담에 앞선 기후행진 등 시민들의 힘이야말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원동력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린피스는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더 많이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를 지지해주는 시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린피스를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해주세요

90% 현실에서 실제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기

84% 최신 환경 관련 이슈들을 가장 먼저 접하고 참여하기

82%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함께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기

80% 온라인을 통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기

7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후원하기

53% 지역 사무소의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그린피스를 지지해주는 분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많은 분들이며, 여러분 자체가 글로벌 환경운동의 일부입니다. 그린피스는 여러분께 최신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후원자님들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액션과 캠페인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린피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에서 최신 정보들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 주신 다양한 메시지들은, 환경보호단체로서 그린피스의 역할과 목표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습니다.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0년 후 자랑스럽게 현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린피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나아갈 것입니다.

만약 타임캡슐을 만들고, 10년 후에 열 수 있다면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넣고 싶으세요?

10년 전 우리는 지구의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지구가 그때 우리의 약속과 노력대로 잘 보존되어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과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를 빌고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모습이라도 지켜낼 수 있다면 그 또한 작지 않은 성과일거라 생각합니다.



노력하니까 이루어졌구나, 앞으로도 파이팅!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



심각한 환경 문제를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을 다음 세대에 사과하고 싶습니다.



전쟁 없이 평화롭고, 모든 동물과 자연이 공존하며 살수 있는 지구이길 바랍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살인면허를 취소하라!

석탄화력발전소는 아무리 뛰어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대기오염물질은 공기를 타고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퍼져 나가 호흡기질환, 폐암 등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그린피스가 '살인면허를 취소하라(No More License to Kill)' 캠페인을 통해 한국에서 계획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그린피스는 최신 정부계획을 바탕으로 건설, 계획 중인 총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치는 건강 피해 및 대기오염 피해를 연구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20기의 석탄 화력발전소는 향후 가동되는 40년 동안 40,80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과 인접한 충청권의 피해가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수도권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악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를 최대 19 $\mu\text{g}/\text{m}^3$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이 연평균 10 $\mu\text{g}/\text{m}^3$ 인 것을 감안하면, 이 기준의 두 배 가까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2015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5 $\mu\text{g}/\text{m}^3$) 최근 발전사들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정석탄발전'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허구에 불과한 주장입니다. 또한 이런 피해를 수수방관한 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살인면허'를 허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별 연간 조기사망자 예상 순위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1위 250명	태안석탄화력발전소 9, 10호기	80명	당진에코파워 1, 2호기
2위 220명	당진석탄화력발전소 9, 10호기	60명	신서천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3위 140명	신보령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60명	고성하이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4위 70명	삼척그린파워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40명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5위 20명	여수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40명	삼척포스파워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20명	북평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의 시대는 끝나갑니다

늘어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전 지구를 위협하게 하는 기후변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는 이미 석탄화력발전을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15년 석탄 수입량을 30% 줄였고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6% 감축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 2016년부터 3년 동안은 새로운 석탄 광산의 승인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재생가능에너지에 2015년에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1,10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를 늘여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석탄 소비량은 전 세계 5위에 달합니다. 2014년에는 전력생산량의 38.9%가 석탄 발전으로 생산된 것에 비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2014년 발전량 기준으로 전체의 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건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는 2029년, 한국에는 총 70기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린피스의 '살인면허를 취소하라'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한국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지구를 살리는 첫 걸음이 됩니다.

글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손민우
www.greenpeace.org/korea/coal





© Jeremy Sutton-Hibbert / Greenpeace

핵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만드는 2016년

안녕하세요! 한국이 단계적인 탈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장다울 캠페이너입니다. 2016년은 후쿠시마 사고 5주년을 맞아, 핵 없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원전 사고의 상처

3월과 4월은 원전 사고로 인해 인류 역사에 커다란 상처가 남겨진 달입니다. 1979년 3월 28일에 미국에서 스리마일 사고가, 1986년 4월 28일에 구소련(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사고가, 그리고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여 년 전에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이래 발생한 수 많은 사고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사고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전 인근 30km 지역은 거주가 제한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시방편으로 사고 원전을 덮어둔 석관이 훼손되어, 다시 강철로 된 아치형의 초대형 덮개(높이 110m, 너비 260m)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크기의 움직임 수 있는 구조물인데도, 한화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일어난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다양한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오염 제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핵폐기물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루 30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되고 있으며, 완전히 녹아버린 핵연료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난 달에는 당시 사고 지역의 18세 이하 아동과 사고 후 1년 이내에 태어난 아이 등 약 37만 명을 상대로 갑상선암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심' 환자까지 포함하면 총 166명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전 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5년이 지났어도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막대합니다. 이는 원전 사고가 여타 다른 사고들과 비교될 수 없는 차원의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 번의 대형사고 모두 인재(人災)였습니다. 원전이 100% 안전할 수 없다는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여전히 원전 마피아들은 후쿠시마 사고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원전 사고는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고리 원전에서 12분간 전원이 완전히 꺼졌었던 것과, 그 사실이 보고조차 되지 않고 은폐되었던 것도 원전 업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영토 대비 가장 많은 원전이 있고, 세계 최대 규모 원전 5개 중 3개가 위치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보았듯이 원전이 밀집해서 위치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러 개의 원전에 동시에 문제가 생겨 그 피해는 배가 됩니다.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시 민첩하게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멍니다. 고리 원전 인근 30km에는 340여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 관리 시스템에서 300만 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원자력발전은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국가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이 도박에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걸어 놓은 판돈도 가장 큼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만 운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접어야 합니다. 이제 도박에서 빠질 준비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수십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올 한해도 그린피스의 단계적 탈핵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우선적으로 이미 세계 최대 원전이 되어버린 부산, 울산에 위치한 고리 원전에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을 막기 위한 캠페인이 후쿠시마 5주기와 4월 총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장다울



© Noriko Hayashi / Greenpeace

독성물질
제거 캠페인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외친 'PFC-Free'

작년 말 그린피스는 전 세계 3만여 명의 시민과 함께 11개의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 40개를 선정하여 유해 화학물질인 PFC(Poly- & Perfluorinated Chemicals: 과불화화합물) 포함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침낭, 재킷, 바지, 신발을 포함한 36개 제품에서 PFC를 발견했습니다.

아웃도어 제품들에서 발견된 PFC

그린피스는 지난 1월 25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최대의 스포츠·아웃도어 용품 박람회 '이스포(ISPO)'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전 세계 아웃도어 업체들에 PFC 사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국내 브랜드 블랙야크의 제품도 포함되었는데, 블랙야크의 재킷에서 PFC의 일종인 PFOA와 FTOH(플루오로텔로머탈코올)이 발견되었습니다. PFOA는 긴사슬 PFC로 이미 그 유해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프라이팬 코팅제인 '테플론'에 사용되어 환경호르몬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암세포 증식, 성장억제, 호르몬 및 면역체계 이상 등의 질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미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용금지를 권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FTOH는 휘발성 PFC로 실내 공기 중에서도 발견되며,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PFOA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비록 대형 브랜드들이 유해 화학물질을 계속해서 사용하며 자연과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있지만, 이미 디드리크스즈(Didriksons), 퓨아(Pyua), 피엘라벤(Fjallraven), 파라모(Páramo) 등 유럽의 소규모 브랜드들은 PFC-Free인 동시에 기능성이 우수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찾기 힘든 브랜드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브랜드들이 PFC 없이도 훌륭한 기능성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뒤따른다면, 더 많은 브랜드들이 'PFC-Free'의 흐름을 따를 것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에게 'PFC-Free'를 요구하다

그린피스는 2월 한달 동안 전 세계 서포터들과 함께 노스페이스와 블랙야크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브랜드들에게 PFC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명동에서 진행된 '디톡스 아웃도어 패션쇼'에서는 노스페이스, 블랙야크의 제품을 입고 런웨이를 활보하던 활동가들이 독성물질 표시가 되어있는 커다란 통에 입고 있던 고기능성 재킷을 벗어 던져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유해물질로 만든 제품을 거부하고, 브랜드들이 PFC를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였습니다.

한국에서만뿐만 아니라 호주, 대만,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아웃도어 브랜드들에게 PFC-Free를 요

구하는 평화적 직접행동과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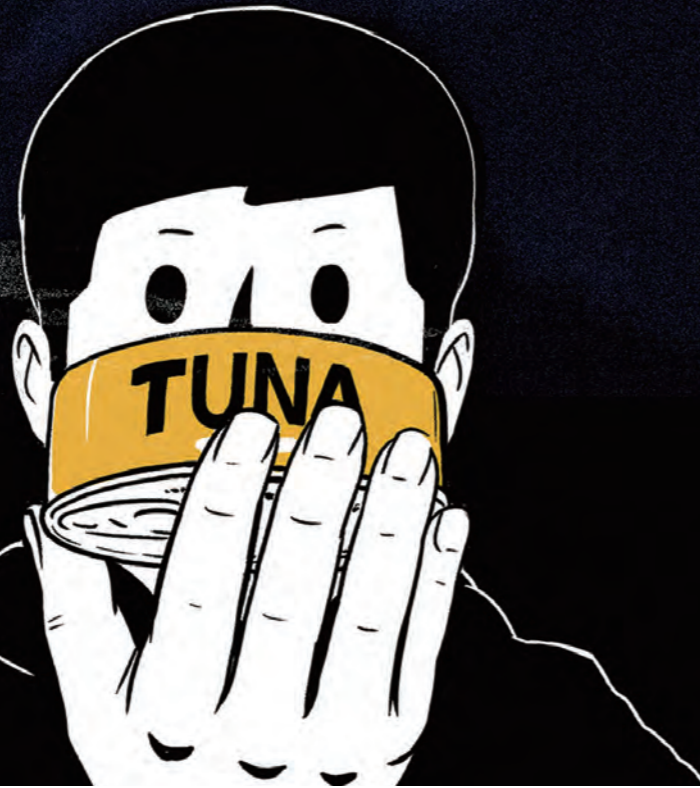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온라인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웃도어 브랜드 CEO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PFC 사용 중단을 요구했고, "#내 마지막 PFC 장비" 사진 이벤트 참여를 통해 더 이상의 PFC는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린피스와 여러분이 함께 만든 디톡스 메아리는 이미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 아웃도어 브랜드 파라모(Páramo)의 디톡스 선언에 이어, 유럽 최대의 섬유 제조 단지인 이탈리아 프라토(Prato) 소재 20개 섬유회사가 동시에 올해 여름까지 PFC의 사용을 전면 중단할 것과 2020년까지 11개 유해 화학물질을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업체들은 아직까지 PFC 퇴출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웃도어 시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PFC 퇴출을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린피스 디톡스 아웃도어 캠페인은 블랙야크처럼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당장 PFC 사용을 중단하고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 디톡스(Detox) 바람을 일으키는 리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먼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작가 김번

참치캔 안에 든 건 참치뿐일까요?

참치캔 통조림, 좋아하시나요? 참치김치찌개, 참치김밥, 참치김치볶음밥까지. 정말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식재료, 바로 참치캔입니다. 그런데 이 신통방통한 통조림 속에 든 건 정말 참치뿐일까요?

먼 바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작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시작으로 그린피스 해양 보호 캠페인팀에서는 '수산업계의 노예노동과 노동력 착취에 관한 그린피스 보고서' 발간에 앞서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상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총 5편의 글과 1편의 웹툰으로 구성된 '참치뿐일까요' 스토리 펀딩(글 형식의 콘텐츠에 대중이 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의 남획과 인권문제의 연결고리, 원양어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참혹한 실태, 참치가 처한 위기 등 너무 생소하여 상상해 본 적도 없을 법한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버려진 인권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조그마한 참치캔 안에 멸종 위기의 상어와 가오리는 물론 다 자라지 않은 새끼 참치와 더불어 선원들의 피눈물이 담겨있는 것들요.

수산물 수요는 늘어나는데, 어족들의 개체 수는 감소하면서 수산물 업계의 경쟁적인 조업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 바로 '비용절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수산업계의 일각에서 자행되어왔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드러나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벤지나'라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 팔려와 고립, 감금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AP통신을 통해 알려지며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입 냉동 간 새우 뒤에 숨겨져 있던 비인간적인 노동자 처우 또한 국제사회를 흔들었습니다.

해양 생물의 씨를 말리는 괴물어선

인권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 그물을 던져 최대한 많은 물고기를 낚기 위해 어선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물을 던집니다. 집어장치를 설치한 뒤 그 주변에 '작은 생태계'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물고기가 모여들면, 어선은 너비는 축구장 60개, 높이는 대관람차 3개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을 둘러 모조리 잡아들입니다. 심지어 바다거북, 치어, 바닷새 까지도 말이에요. 이렇게 '괴물어선'들이 한 번에 잡아들이는 양이 일부 국가가 한 해 동안 어획하는 양과 맞먹을 정도라고 하니, 해양 생물 개체 수가 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와 사람,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해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참치캔 속에 든 것이 참치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참치캔을 비롯한 수산물이 인권유린이나 혼획, 더 나아가 일부 어종의 멸종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돈을 내고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더러운 유통망을 사용하는 수산업계의 변화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소비자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업계나 정부는 스스로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수산업계의 인권문제를 다룬 그린피스의 보고서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해상인권문제의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그린피스가 소망하며 그리는 건강한 바다에는 다양성을 유지하며 힘차게 수영하는 해양 생명뿐만 아니라, 배 위의 어부와 선원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인간 또한 행복해져야 진정으로 건강한 바다가 아닐까요?

글 해양 보호 캠페이너 김지우

*'참치뿐일까요' 시리즈와 '수산업계의 노예노동과 노동력 착취에 관한 그린피스 보고서'는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Paul Hilton / Greenpeace



© Roger Grace / Greenpeace

© Peter Rowlands / Greenpeace



© Ulet Ifansasti / Greenpeace

숲을 삼켜버린 불길에 맞서는 사람들

지난해, 아마존의 원주민 지역과 인도네시아의 숲이 전례 없는 대형 화재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생태계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준 이번 화재는 불법 벌목과 상업적 대규모 조림 등, 전적으로 인간에 의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피스는 화재의 '가해자'에 주목했습니다.

불길에 에워싸인 사람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에 따르면, 아마존 마라냥 주에 위치한 원주민 지역에는 12월 초 4천 개 이상의 불꽃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원주민 지역은 아마존 우림에 속하는 보호구역이지만, 불법 벌목꾼들은 더 많은 나무를 착취하기 위해 숲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가 화재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은 등 뒤에 아기를 업은 채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화재에 맞서 숲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원주민들은 그들의 집과 나무,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사냥이나 음식물 채집도 그만두고 화재 진압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식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가는 길마저 막혀버렸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불의 공포뿐 아니라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우림에서 벌어진 화재는 15년간 계속되어 3천만 헥타르(독일 영토와 맞먹는 크기)에 달하는, 생태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팜유를 생산하는 대형 플랜테이션 농장들과 제지 회사들이 개간을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탄(나뭇잎들이 오랜 세월 쌓여 만들어진 숯 덩어리 휴)지대로 작은 불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이탄지대의 물을 빼내기 위해 운하를 만든데다 작년의 비정상적인 강한 엘니뇨 현상 때문에 불길은 더욱 견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화재가 남긴 상처

환경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피해는 늘어만 갔습니다. 수많은 오랑우탄들과 멸종 위기의 동물들은 서식지를 잃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억 달러(약 12조 80억 원)가 넘는 손해를 입었고,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흡입하고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 Galih Nofrio Nanda / Greenpeace

무엇보다, 이 엄청난 화재는 수천 톤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뿜어냈습니다. 11월에는 하루에 배출된 탄소량이 미국 전역에서 경제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량을 뛰어넘었을 정도입니다.

숲을 위해 나선 그린피스와 사람들

직접행동에 나서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구호단체들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의 파두란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1월 말부터 2주 동안, 우리는 화재가 더 퍼지는 것을 막고 이탄지대의 물이 운하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댐을 쌓았습니다.

정부를 설득하다

작년 11월 말 파리에서 열린 기후협약에서 그린피스는 25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에게 전달하며 숲과 이탄지대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40만 명의 시민들이 아마존 산림파괴를 100%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참여해 정부가 산림개발 승인을 중단하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기업을 압박하다

그린피스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숲 화재의 40%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산림벌채와 플랜테이션농업 개발 인가를 받은 지역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 사실을 대중에게 계속해서 알렸으며, 수 많은 시민들은 금융기업들에게 환경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에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Greenpeace



우리에겐 초록빛 DNA가 필요합니다

환경디자이너 윤호섭 교수님

광고 디자이너로 출발해 국민대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디자인에 참여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광고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인 윤호섭 교수님. 디자인을 통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환경디자이너'로도 널리 알려진 윤호섭 교수님과 그린피스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린피스와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린피스의 활동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장다울 캠페이너가 먼저 연락을 해줘서, 후쿠시마 피해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사능에 피폭될까 두려워 아이들이 집 밖에 나와 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고, 더 많은 이들에게 원전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제 또래는 많지 않은데요, 시민이자 어른의 입장에서 원자력 문제에 대한 걱정과 의견을 나누고자 하고 있지요.

인사동에서 티셔츠에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으로도 유명하시죠.

작년 10월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오픈 보트 행사에서도 티셔츠에 돌고래를 그려 드렸는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다들 기뻐하는 모습을



© Greenpeace

보니 더 좋고, 그런 순간들이 제 삶에서 중요한 시간이예요.

돌고래는 해양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호의적이고 귀여운 모습이 좋아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벌써 16년째 그리고 있지만 요새 파괴되고 있는 자연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환경 문제는 특정한 전문가나 환경주의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환경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환경 문제를 접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책임이 있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DNA가 초록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자 소식

새롭게 단장한 후원자 페이지를 만나보세요!

그린피스 홈페이지의 후원자 페이지가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로그인 절차가 간단해져 후원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후원금 사용 내역과 최근 활동 뉴스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후원자 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단장한 후원자 페이지에서는 자연 풍경과 멋지고 귀여운 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컴퓨터·스마트폰 바탕화면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린피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그린피스의 최신 소식도 확인하시고, 예쁜 바탕화면도 다운 받으세요!



임팩트 리포트에 후원자님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린피스 후원을 처음 결심하게 만들었던 '거리모금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린피스를 처음 후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린피스의 소식지 '임팩트 리포트'에서는 후원자님의 재미있는, 또는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나보고 싶은 거리모금가가 있으시거나, 그린피스와 얽힌 후원자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선정된 사연을 바탕으로, 후원자님과 추후 인터뷰를 진행하여 임팩트 리포트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임팩트 리포트에 후원자님의 뜻 깊은 이야기를 공유해주시고, 그린피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주세요!

사연 보내실 곳

후원관리팀 supporter.kr@greenpeace.org(상시 모집)



© Lee Kang Hoon / Greenpeace